

아동,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 연령과 성에 따른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우울증의 취약성 중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발달되는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방식과의 관계 및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남녀 초등학교 4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 34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연령과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생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여중생은 외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상관 분석 결과, 전체 집단의 경우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생활 스트레스 간 상관이 가장 컸고,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 여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아버지의 거부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인 반면, 여중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와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방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집단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다. 어머니의 거부와 과보호 양육방식은 생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 역시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여학생은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부정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성일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령과 성에 따라 아동, 청소년 우울증의 취약성이 발달하는 기제를 규명함으로써 우울증의 예방적 개입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주요어 : 아동, 청소년 우울 취약성, 부정적 자동적 사고,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예방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균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Fax : 062-530-2659 / E-mail : shk2004@chonnam.ac.kr

아동,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증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을 동반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성인기까지 반복되는 우울 삽화를 보이는 등, 나쁜 예후를 가진다. 우울한 학령기 학생들의 경우 우울증상 뿐 아니라 학습 곤란이나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무기력증, 신체 증상 등을 쉽게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무단결석, 가출이나 범죄 행동 등의 비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신현균, 2006a, b; Avenevoli & Merikangas, 2006; Horowitz & Garber, 2006). 또한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행동 간에도 강한 연관성이 있다(Spence & Reinecke, 2003).

국내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외 한 도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2,203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를 실시한 결과, '명확한' 우울증 증상의 유병률은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18.4%, 여학생 20.7%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21.4%, 여학생 23.9%였다. '가능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34.6%, 여학생 44.7%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43.8%, 여학생 49.6%였다. 이 결과는 외국의 경우, 18세까지 약 20%가 적어도 한번은 우울 삽화를 경험한다(Spence & Reinecke, 2003)는 통계치와 비교해 볼 때,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 비율이 한국에서 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욱, 류인균, 조맹제, 2001).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우울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 복합장애이므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예방적 개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우울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취약요인과, 그 취약요인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환경적 요인들이다. 우울증의 예방적 개입이 효과적이라면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므로, 우울증의 취약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울 취약성과 관련된 기제에 대한 연구는 아동, 청소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심리학적 개입이 가능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우울증의 취약성과, 그러한 취약성을 유발하는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 청소년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약 요인으로 부정적인 인지를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나 귀인편향 등은 우울증의 강력한 예언변인이다(Cole & Turner, 1993; Stark, Schmidt, & Joiner, 1996; Bruce, Cole, Dallaire, Jacquez, Pineda, & LaGrange, 2006에서 재인용). 인지적 소인-스트레스 모형에 따르면 부적응적인 도식이나 암묵적 신념들은 우울증의 발생에서 원거리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자동적 사고, 귀인양식 등은 근거리 위험요인이 된다(Spence & Reinecke, 2003). 특히 자동적 사고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선하, 김춘경, 2006). 국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적인 인지와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우울증상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08). 따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우울증을 발달시킬 소인이 되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인특성으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취약요인이라 할 수 있다(Spence & Reinecke, 2003).

이러한 우울증의 취약요인은 우울증의 예방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으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취약성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의 기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Spence와 Reinecke(2003)이 제안한 아동, 청소년 우울증의 발병과 유지에 대한 생물심리사회학적 모형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지지 등이 자기, 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아동 우울증의 취약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2, 4, 6학년 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생활사건과 인지적 소인 간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있다(Bruce et al., 2006). 연구 결과, 스트레스 사건이 아동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부정적인 인지 삼제, 그리고 우울증적 귀인양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지편향을 가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겪은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미래를 예언하는데 병합함으로써 무망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경험이나 만성적인 부정적 생활사건을 겪는 것은 자기, 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동의 견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사건을 겪을 때 실제로는 아동의 책임이 아니지만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정

적 생활사건이 아동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울증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아동, 청소년의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안되는 또 다른 변인은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이다(Spence와 Reinecke, 2003).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며 주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자녀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 양육방식, 부정적 사고 특성 및 우울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 방치, 스트레스를 주는 것 등이 자녀를 우울하게 성장하도록 만든다(Avenevoli & Merikangas, 2006). 우울한 아동의 가족특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가족이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고 비난하며, 그 가족 내의 다른 아동과 비교해볼 때 덜 온정적으로 대하고, 더 많은 분노와 통제를 보이며, 덜 지지적이고, 빈약한 의사소통을 하고, 과도하게 간섭한다(Chiariello & Orvaschel, 1995). 초기 청소년기 시기에 우울증의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12-13세 아동 2,0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 여 모두에서 부모의 행동이 우울증의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즉, 지각된 부모의 돌봄, 지각된 부모의 거부, 등 부모의 양육 관련 행동이 아동 우울증을 잘 설명하였다(MacPhee & Andrews, 2006). 또한 청소년 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 결과,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처벌과 비일관적인 양육이 자녀의 우울증을 지속시켰다(Cohen, Brook, Cohen, Velez, & Garcia, 1990, Garber, 2005에서 재인용). 국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력과 학대가 자녀의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오승환, 변귀연,

2008). 한편, 긍정적인 양육방식은 우울증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7-17세의 우울한 아동에 대한 1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우울증의 회복을 예측하였다(Goodyer, Germany, Gowrusankur, and Altham, 1991, Garber, 2005에서 재인용).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우울증 간의 관련성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이나 비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증가시켜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Garber, 2005).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612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 우울증의 인지적 소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우울 성향은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고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양육기술의 부족, 가중된 스트레스와 대처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을 쉽게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옥자, 현온강,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이 아동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부정적인 인지 삼재, 그리고 우울증적 귀인양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인 양육은 이런 인지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Gibb, 2002).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우울증적 인지 간 관련성의 기제를 살펴보면, 먼저 내재화과정을 들 수 있다. 아동에게 부모의 피드백은 중요한 자기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동은 타인이 자신을 보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게 된다. 부모의 학대나 잘못된 양육은 아동의 과도한 자기 비난을 가져올 수 있다(Gibb, 2002). 특히 어머니의 비난과 거부는 아동으로 하여

금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만든다(Garber, 2005). 또한 아동은 가정환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부 세계, 미래, 타인에 대한 견해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아동은 다른 타인들도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Bruce et al., 2006). 이처럼 부모의 낮은 수용/온정성과 높은 통제를 받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인지양식을 보였다(Rudolph, Kurlakowsky, & Conley, 2001). 이처럼 잘못된 양육방식에서 초래된 부정적인 인지편향 등의 취약성은 결국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부정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들로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모 양육방식을 들 수 있다.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보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취약한 인지 특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부모 양육방식이 중재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은 아동, 청소년에게 커다란 상실 경험으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지만, 이혼이 자녀의 우울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혼 가정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과 비교할 때 우울,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존감과 학업 성적이 더 낮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공격성이 더 높아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홍순혜, 2004). 이런 사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겪는 아동, 청소년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적응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 생활사건과 아동, 청소년의 우울 취약성 간 관계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재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 청소년이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부모가 온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한다면 부정적 인지 특성을 발달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 부모가 거부나 비난 등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한다면 부정적 인지 특성을 발달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 양육방식이 중재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국내 아동,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은 친구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친구가 자신을 무시할 때, 따돌림당할 때, 등의 교우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험 점수가 나쁠 때, 교사의 차별대우 등 학업성취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광식, 히로소리 시마다, 주호수, 1998).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결과,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성향이 컸으며, 우울성향은 특히 친구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와 각각 .53, .44의 상관을 보여 학업과 친구 관계와 관련된 생활사건이 중요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인다(심희옥,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과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생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가 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리, 1996). 이런 결과들은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특히 학업

이나 또래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들이 겪는 주요 생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 부모 양육방식 및 자동적 사고 간 관계에 있어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13-14세 시기에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Hollon, Munoz, Barlow, Beardslee, Bell, Bernal, Clarke, Franciose, Kazdin, Kohn, Linehan, Markowitz, Mitlowitz, Persons, Niederehe, & Sommers, 2002). 따라서 우울 취약성은 이 시기 이전에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실은 우울증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적합한 시기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Bruce 등(2006)에 의하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어린 연령대에서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스트레스 사건이 아동의 부정적인 인지에 영향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에게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4학년 정도가 되면 이미 현실 판단이 비교적 정확해지고 비교적 오랜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경우에도 귀인 편향이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임양화, 오경자, 1989). 한편으로 더 늦은 시기, 즉 우울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귀인양식이 우울증의 안정적인 소인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Cole, Ciesla, Dallaire, Jacquez, Pineda, LaGrange, Truss, Folmer, Tilghman-Osborne & Felton, 2008). 이런 경향은 자기 관련 단어에 대한 기억편향에서도 나타나는 바,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정

적인 자기 도식이 더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다(Cole & Jordan, 1995).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누적되며, 부정적인 인지 특성 등의 우울 취약성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대처방식이나 인지특성 등 다른 요인들이 우울증 발생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 나이가 어린 아동들의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Johnson & McMurrich, 2006).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이희연, 하은혜,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들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본 연구에서는 인지 특성이 안정화되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과, 이미 안정화된 중학교 2학생을 비교함으로써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령의 역할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13세 이후에 여성 우울증 비율은 남성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된 인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울증의 정교화된 인지취약성-교류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특히 신체적 매력과 관련해 반추적이고 부정적인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Cohen, Kasen, Velez, Hartmark, & Johnson, 1993, Bruce et al., 2006에서 재인용; Hankin & Abramson, 2001). 국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증상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08). 이처럼 여성이 우울증에 취약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경

향은 여성에게 특징적인 스트레스 요인들과 관련될 수 있다(Hankin & Abramson, 2001). 즉, 생애 초기의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사건들(남아보다 더 많은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특히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부정적 사건들)이 여아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에 더해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른 것도 소녀들의 우울 취약성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부모 양육방식이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자 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윤지은, 최미경, 2004). 또 다른 연구 결과, 남자 청소년의 반사회적 문제행동은 주로 아버지의 적대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 여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찬란, 이형실, 2006). 이처럼 양육방식이 심리장애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 연령에 따라 생활 스트레스와 자동적 사고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부모 양육방식이 중재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생활 스트레스나 부모 양육방식이 아동의 부정적 사고나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는 우울증의 취약성이 발달하는 기제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 뿐 아니라, 우울증의 예

방적 개입에서 연령과 성에 따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개입할지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그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생활 스트레스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성에 따라서도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 부정적 생활사건, 부모 양육방식, 그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셋째, 생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재 효과를 보일 것이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스트레스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 부모의 과잉보호와 간섭, 거부적이거나 처벌적인 양육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여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증가시킬 것이다. 넷째, 연령과 성에 따라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그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의 상관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방식의 중재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긍정적인 방향의 중재 효과를 보이겠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과잉보호와 간섭, 거부적 양육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과잉보호와 간섭, 거부적 양육이 부정적인 방향의 중재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대상

G 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서 부모 동의를 받은 초등학교 4학년생 172명(남학생 82명, 여학생 90명)과 중학교 2학년생 173명(남학생 83명, 여학생 90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총 345명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아동용 자동적 사고 척도

한국판 아동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Korean-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pee(2002)가 개발한 척도를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를 통해 32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이다. 4가지 하위 요인으로 우울 인지(우울이나 개인적 실패 관련), 적대적 인지(보복심이나 적개심 관련), 사회불안 인지(사회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 관련), 신체적 위협 인지(신체적 위협 상황에 대한 불안감 관련)가 있다. 0-4점까지 평정하는 5점 척도이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94였고, 각 하위 요인들의 α 는 .90, .75, .92, .83이었다.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묻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92이다(강유진, 2008). 스트레스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세 개의 하위영역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 요인

2는 “친구스트레스”, 요인 3은 “외모 및 물질 스트레스”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업, 친구, 외모, 물질 스트레스로 세분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82, .79, .70, .65, .73이었다.

부모 양육태도 척도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단축형(Arrindell & Angebretsen, 2000)을 문민정(2008)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이다. 총 23문항으로 온정, 과보호, 거부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온정 척도에는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과보호 척도에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셨다.’, 거부 척도에는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하셨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부의 온정 .88, 부의 과보호 .78, 부의 거부 .82였고, 모의 온정 .89, 모의 과보호 .80, 모의 거부 .78이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

G 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부모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개요, 실시 시간과 방법,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개별 결과 통보에 대한 설명, 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질문지를 실시하

였다. 총 345명에 대해 교실에서, 혹은 방과후 활동 시간에 단체로 질문지를 실시하고 보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질문지를 작성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트레스 수준과 부모 양육방식 척도 점수를 간단하게 해석한 개별 결과지를 전달하였다.

자료 분석은 먼저 연령과 성에 따라 생활 스트레스,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부모 양육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연령과 성별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는 예언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전체적으로 개별 스트레스 경험별로는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F(1, 344) = 86.18, p < .001$. 다음으로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F(1, 344) = 59.87, p < .001$. 다음으로 외모와 물질 관련 스트레스를 친구 관계 스트레스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F(1, 344) = 6.52, p < .05$.

연령과 성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즉,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F(1, 341) = 83.14, p < .001$. 성의 주효과

표 1. 연령과 성별 생활 스트레스,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부모 양육방식 평균과 표준편차 (N=345)

변인	하위변인	학년	성	평균	표준편차	집단비교
생활 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a	초4	남	.71	.83	중>초등
			여	.54	.71	
		중2	남	1.36	.96	
			여	1.39	.89	
	학업스트레스	초4	남	.95	1.02	중>초등
			여	.67	.72	
		중2	남	1.79	.97	
			여	1.81	.99	
	외모스트레스	초4	남	.28	.47	중>초등
			여	.29	.46	
		중2	남	.75	.77	
			여	1.01	.84	
	불결스트레스	초4	남	.50	.65	중>초등
			여	.35	.56	
중2		남	.77	.94		
		여	.83	.89		
친구스트레스	초4	남	.53	.78		
		여	.48	.67		
	중2	남	.48	.72		
		여	.42	.65		
스트레스 총점	초4	남	9.62	9.04	중>초등	
		여	7.51	6.87		
	중2	남	16.93	10.00		
		여	17.78	9.64		
아버지 양육방식 ^b	거부	초4	남	1.30	.45	
			여	1.19	.36	
		중2	남	1.29	.44	
			여	1.32	.48	
	온정	초4	남	2.21	.79	
			여	2.31	.79	
		중2	남	2.31	.79	
			여	2.16	.68	
과보호	초4	남	1.47	.41	중>초등 남>여	
		여	1.30	.33		
	중2	남	1.57	.50		
		여	1.52	.48		
어머니 양육방식 ^c	거부	초4	남	1.27	.33	
			여	1.21	.36	
		중2	남	1.33	.51	
			여	1.28	.39	
	온정	초4	남	2.37	.86	
			여	2.48	.83	
		중2	남	2.71	.81	
			여	2.52	.70	
과보호	초4	남	1.52	.45	중>초등	
		여	1.43	.46		
	중2	남	1.78	.62		
		여	1.76	.55		
부정적자동적사고	총점	초4	남	16.45	20.56	중>초등
			여	13.11	17.59	
		중2	남	22.56	21.05	
			여	21.41	19.03	

집단별 사례수: 남자 초등생 82, 여자 초등생 90, 남자 중학생 83, 여자 중학생 90

※: 하위척도들의 문항 수가 각각 달라 하위척도의 경우 합산치가 아닌 평균치를 제시하였음.

나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별 스트레스별로 보면,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 학업, 외모, 물질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지만, 친구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F(1, 341) = 3.28, p = .06$)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스트레스 경험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은 외모 스트레스에서 유의미 경향성($F = 3.23(1, 341), p = .07$)을 보였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외모 스트레스를 겪는 데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령과 성별 생활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사고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즉,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 $F(1, 341) = 11.69, p < .001$. 성의 주효과나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 부정적 사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온정적 양육방식을 거부적, 과보호하는 양육방식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을 아버지의 온정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고, $F(1, 323) = 65.17, p < .001$. 아버지의 온정을 어머니의 과보호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다, $F(1, 323) = 175.29, p < .001$. 어머니의 과보호를 아버지의 과보호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고, $F(1, 323) = 33.73, p < .001$. 아버지의 과보호를 어머니의 거부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

다, $F(1, 323) = 47.00, p < .001$. 어머니의 거부와 아버지의 거부를 지각하는 데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323) = 0.04, n. s.$

각각의 부모 양육방식에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의 과보호와, $F(1, 320) = 10.58, p < .001$, 어머니의 과보호를 더 많이 지각하였고, $F(1, 320) = 24.77, p < .0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도 더 많이 지각하였다, $F(1, 320) = 4.26, p < .05$. 성의 주효과는 아버지의 과보호에 대해서만 유의미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아버지가 과보호한다고 지각하였다, $F(1, 320) = 5.25, p < .05$.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 부모 양육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상관

연령과 성별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의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들이 .4 ~ .6 사이로 크게 나타나 스트레스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하위영역들 간 상관들 역시 .5 ~ .8 사이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 사고 총점이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도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생활 스트레스 간 상관은 .61로 상당히 높았고,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과는 .50,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과는 .37, 아버지의 과보

표 2. 연령과 성별 부정적 자동적 사고, 생활 스트레스 및 부모 양육방식 점수 간 상관 (N=345)

	스트레스	부 거부	부 온정	부 과보호	모 거부	모 온정	모 과보호
부정적 사고	.61** ^a	.50***	-.03	.33**	.37**	.06	.28**
	.68** ^b	.51**	.09	.46**	.33**	.10	.32**
	.59** ^c	.54**	-.10	.28**	.34**	.02	.32**
	.48** ^d	.57**	.05	.34**	.24*	.08	.03
	.67** ^e	.39**	-.17	.17	.60**	-.06	.35**

* $p < .05$. ** $p < .01$. *** $p < .001$.

^a전체 (N=345) ^b남초등생 (N=82) ^c여초등생 (N=90) ^d남중학생 (N=83) ^e여중학생 (N=90)

호 양육과는 .33,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과는 .28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성과 연령에 따라 네 집단별로 상관을 구한 결과,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모든 집단에서 부정적 사고와 스트레스 간에 상관이 컸다. 부모 양육 방식 중에서는 남, 여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인 반면, 여중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은 모든 집단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과보호와 어머니의 과보호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 여 모두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중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과보호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방식은 모든 집단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생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에서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

전체집단 및 연령과 성에 따른 집단별로 생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에서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입력(Enter)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에서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방식을, 2차에서 스트레스와 여섯 가지 부모 양육방식 간의 상호작용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해 중다회귀분석하였다.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 값이 0.01 이하인 경우는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주일, 2002).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집단별로 표 3 ~ 표 7에 제시하였다.

전체집단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점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설명량은 35%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11%의 설명량을 추가하였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1%의 설명량을 추가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와 과보호 양육방식은 생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2%의 설명량을 추가하여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하

표 3. 전체집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상호작용 변인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

	예언변인	β	t	R^2	R^2 변화량	F 변화량
포함된 변인	스트레스	.59 ^a	13.21 ^{***}	.35	.35	174.41 ^{***}
	부 거부	.35 ^b	8.02 ^{***}	.46	.11	64.29 ^{***}
	부 온정	.09 ^c	2.22 [*]	.47	.01	4.92 [*]
	스트레스×모 거부	.36	2.76 ^{**}	.49	.02	2.16 [*]
	스트레스×모 과보호	-.24	-2.05 [*]			
제외된 변인	부 과보호	-.14	1.42			
	모 거부	-.05	-.56			
	모 온정	.07	.69			
	모 과보호	.07	.84			
	스트레스×부 거부	.28	1.70			
	스트레스×부 온정	-.01	-.05			
	스트레스×부 과보호	-.02	-.17			
	스트레스×모 온정	-.02	-.23			

^{*} $p < .05$. ^{**} $p < .01$. ^{***} $p < .001$.

abc: β 는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기 전의 값임.

표 4. 남자 초등생 집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상호작용 변인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

	예언변인	β	t	R^2	R^2 변화량	F 변화량
포함된 변인	스트레스	.65 ^a	7.35 ^{***}	.42	.42	54.09 ^{***}
	부 거부	.09 ^b	2.48 [*]	.46	.04	6.17 [*]
	부 온정	.19 ^c	2.33 [*]	.49	.04	5.41 [*]
제외된 변인	부 과보호	.23	1.14			
	모 거부	.07	.43			
	모 온정	.10	.51			
	모 과보호	.22	1.40			
	스트레스×부 거부	.10	.32			
	스트레스×부 온정	.28	1.06			
	스트레스×부 과보호	-.17	-.64			
	스트레스×모 거부	-.08	-.32			
	스트레스×모 온정	.11	.41			
	스트레스×모 과보호	-.19	-.77			

^{*} $p < .05$. ^{***} $p < .001$.

abc: β 는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기 전의 값임.

표 5. 여자 초등생 집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상호작용 변인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

	예언변인	β	t	R^2	R^2 변화량	F 변화량
포함된 변인	스트레스	.61 ^a	7.12 ^{***}	.37	.37	51.73 ^{***}
	부 거부	.41 ^b	5.12 ^{***}	.52	.15	16.18 ^{***}
	스트레스×부 거부	1.11	2.03 [*]	.56	.04	1.28
제외된 변인	부 온정	.15	1.36			
	부 과보호	-.01	-.09			
	모 거부	.19	.96			
	모 온정	.16	1.49			
	모 과보호	.10	.75			
	스트레스×부 온정	-.16	-.86			
	스트레스×부 과보호	.17	.75			
	스트레스×모 거부	-.02	-.14			
	스트레스×모 온정	-.06	-.32			
스트레스×모 과보호	-.04	-.23				

^{*} $p < .05$. ^{***} $p < .001$.

^{ab}: β 는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기 전의 값임.

표 6. 남자 중학생 집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상호작용 변인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

	예언변인	β	t	R^2	R^2 변화량	F 변화량
포함된 변인	부 거부	.57 ^a	5.93 ^{***}	.33	.33	35.18 ^{***}
	스트레스	.28 ^b	2.83 ^{**}	.39	.07	8.03 ^{**}
	스트레스×부 온정	.63	2.18 [*]	.49	.09	2.00
제외된 변인	부 온정	-.02	-.10			
	부 과보호	.18	.75			
	모 거부	-.27	-1.10			
	모 온정	.05	.32			
	모 과보호	.04	.20			
	스트레스×부 거부	.63	1.21			
	스트레스×부 과보호	.13	.63			
	스트레스×모 거부	.10	.47			
	스트레스×모 온정	-.03	-.14			
스트레스×모 과보호	-.19	-1.10				

^{*} $p < .05$. ^{**} $p < .01$. ^{***} $p < .001$.

^{ab}: β 는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기 전의 값임.

표 7. 여자 중학생 집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상호작용 변인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

	예언변인	β	t	R^2	R^2 변화량	F 변화량
포함된 변인	스트레스	.63 ^a	7.41 ^{***}	.40	.40	54.89 ^{***}
	모 거부	.43 ^b	5.15 ^{***}	.55	.15	26.55 ^{***}
	스트레스×모 온정	.49	2.76 ^{**}	.61	.06	1.85
제외된 변인	부 거부	.06	.24			
	부 온정	-.284	-1.44			
	부 과보호	.02	.10			
	모 온정	-.08	-.47			
	모 과보호	-.27	1.52			
	스트레스×부 거부	.19	1.29			
	스트레스×부 온정	-.08	-.66			
	스트레스×부 과보호	-.08	-.55			
	스트레스×모 거부	-.06	-.24			
스트레스×모 과보호	.07	.44				

** $p < .01$. *** $p < .001$.

^{ab}: β 는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되기 전의 값임.

였다. 이들 변인들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총 설명량은 49%였다.

연령과 성에 따른 집단별 분석 결과,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방식,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집단별로 49% ~ 61% 설명하여 설명량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예언변인들이 연령과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 녀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과 온정적 양육방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서 중요한 예언변인인데 비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방식과 온정적 양육방식

이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 녀 초등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점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설명량은 각 집단별로 42%, 37%, 40%였다. 반면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가장 잘 설명하여 33%의 설명량을 보였다. 남, 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다음으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각각 4%, 15%의 설명량이 증가되었다. 남자 초등학생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방식도 4%의 설명량을 추가하였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 다음으로 생

활 스트레스 점수가 7%의 설명량을 추가하였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15%의 설명량을 추가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와 양육방식의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에 포함되었다. 4%의 설명량을 추가하였지만 추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에 포함되어 9%의 설명량을 추가하여 $p = .08$ 수준에서 유의미 경향성을 보였지만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에 포함되어 6%의 설명량을 추가하여 $p = .10$ 수준에서 유의미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주로 설명하였고,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는 상당한 설명량을 추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경향성만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우울증의 취약성 중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는 기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자동적 사고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 양육방식이 중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성과 연령에 따라 이들 변인들의 관련성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 학업, 외모, 물질 관련 스트레스 등 대부분의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성에 따른 분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외모 스트레스를 겪는 데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기에 우울증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에 더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비율이 급증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의 우울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계획할 때 성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우울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외모 영역에서의 인지 취약성에 대해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Hankin & Abramson, 2001). 즉,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경직된 기준과 반추적이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내용을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예상대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

고를 더 많이 보였다. 스트레스 경험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는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그 이전에 예방적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ollon et al., 2002; Sims, Nottelmann, Koretz, & Pearson, 2006).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가 되면 확고하지는 않지만 이미 귀인 편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우울 취약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Bruce et al., 2006).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우울증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9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녀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Kendall, 2006).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누적되며, 우울증의 취약성이 안정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취약성이 뚜렷해지기 이전인 초등학교 3-4학년 경부터 예방적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이희연, 하은혜, 2008). 선행 연구의 대상이 중, 고등학생이었고, 특히 고 3학년생이 부정적 사고를 많이 보인 데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생과 중학생이어서 우울증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자 중학생이 외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경향성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면, 연령이 더 많은 집단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로 온정적 양육방식을 거부적, 과보호하는 양육방식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다. 연령과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를 더 많이 지각하였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도 더 많이 지각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과보호나 간섭을 포함해 부모의 관심을 더 예민하게 지각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대해서도 더 잘 지각할 수 있어 청소년이 성숙의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아버지가 과보호한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는 양육방식에서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한국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통제적 양육을 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더 지지적인 양육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이 결과는 한국의 아버지들이 특히 아들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강요를 통한 통제를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집단의 경우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생활 스트레스 간 상관은 .61로 상당히 컸고,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예상과 달리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보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는 데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 교육에서 특히 거부적이고 처벌과 비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성과 연령에 따라 상관분석에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남, 여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인 반면, 여중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가장 큰 상관을 보였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아버지의 과보호가, 여학생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부모 양육방식이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여자 청소년의 자존감을 낮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윤지은, 최미경, 2004).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의 과잉기대, 과보호 및 거부적 태도가 같은 성을 가진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는 등, 우울증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 양육방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집단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점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설명량은 35%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11%의 설명량을 추가하였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1%의 설명량을 추가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와

과보호 양육방식은 생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2%의 설명량을 추가함으로써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중재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부모 양육방식이 독자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변인들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총 설명량은 49%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 우울증의 취약성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들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부모에게는 바람직한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아버지의 거부적이고 처벌, 비난하는 양육방식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울 취약성이나 우울증의 예방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어머니의 거부와 과보호 양육방식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바, 중재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예상보다 설명량이 크지 않았다.

연령과 성에 따른 분석 결과, 부모 양육방식에서 부모와 자녀 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즉,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생활 스트레스보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설명하여 33%의 설명량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아버지가 아들의 우울 취약성 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생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방식 및 온정적 양육방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중요한 예언변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이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남, 녀 모두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특히 남자 초등학생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방식도 유의미하게 설명량을 추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생 시기에 아버지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방식이 우울 취약성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 역시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에 포함되었다. 즉, 초등학생은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성일 때 온정적 양육방식이 스트레스 중재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특히 동성 부모의 부정적 양육은 독자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지만, 긍정적 양육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재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설명량 증가량이 4% ~ 9%에 달했지만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좀 더 많은 연구 대상자를 포함하여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생활 스트레스나 부모 양육방식이 아동의 부정적 사고 및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MacPhee & Andrews, 2006; Garber, 2005),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우울증 간의 관련성을 가져오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같은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우울 취약성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연령과 성에 따라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우울증의 예방적 개입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되어 왔고, 어머니의 애정이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어 온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들을 더 정교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성과 연령에 따라 우울 취약성을 유발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적 개입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에는 인지적 취약성이 아직 안정된 성격 특성으로 굳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우울증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인지행동적 접근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그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으므로(Horowitz & Garber, 2006),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둔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런 예방적 개입이 주로 고위험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일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장면에서 실시하는 전반적 접근방법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중 사회적 가치의 획일성, 조급성 등의 문제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김교현, 2004). 입시 위주 교육 풍토에서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상적인 좌절이 많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잠재적인 우울증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예방적 개입의 효과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인지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1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Pattison과 Lynd-Stevenson (2001)의 연구 결과, 개입 직후에는 효과가 0에 가까웠지만 8달 후의 추수 연구에서 .40의 효과 크기를 보여 학교 장면에서의 우울 예방 개입이 장기적으로 우울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우울 예방에서 부모에 대한 개입은 필수적이다. 부모 양육방식은 아동, 청소년에게 우울증의 취약성을 발달시키게 할 뿐 아니라 아동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 취약성 발달을 가중시키거나, 반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Goodyer et al., 1991).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개입을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 및 연령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Kraai, Garnefski, de Wilde, Dijkstra, Gebhardt, Maes, & ter Doest, 2003).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의 소수 인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집단별 사례수가 적어 중다회귀분석에서 일부 예언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만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위해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8).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 김교현 (2004). 한국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0, 55-68.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환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7(6), 249-261.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4), 955-963.
- 문민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찬란, 이형실 (2006).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2), 151~162.

- 신현균 (2006a).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Somatic Symptoms, Life Event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9-38.
- 신현균 (2006b). 청소년의 신체증상 경험에서 부정적 정서의 영향 및 정서표현과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13-732.
- 심희옥 (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33-144.
- 오승환, 변귀연 (2008). 해체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14, 83-106.
- 윤지은, 최미경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간 갈등과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37-251.
- 이미리 (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 활동 경험과의 관계-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학년생의 비교-. *아동학회지*, 17(1), 137-152.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 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주일 (2002).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분석. 시그마프레스.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3(4), 547-561.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욱, 류인균, 조맹제 (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 조옥자, 현운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홍광식, 히로소리 시마다, 주호수 (1998). 한국과 일본 초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 비교 분석. *초등교육연구*, 12(1), 231-246.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 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Arrindell, W. A., & Angebretsen, A. A.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 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262-266.
- Avenevoli, S., & Merikangas, K. R. (2006). Implications of high-risk family studies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 126-135.
- Bruce, A. E., Cole, D. A., Dallaire, D. H., Jacquez, F. M., Pineda, A. Q., & LaGrange, B. (2006). Relations of parenting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ognitive diatheses for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21-333.
- Chiariello, M. A., & Orvaschel, H. (1995). Pattern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Relationship to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5), 395-407.
- Cohen, P., Brook, J. S., Cohen, J., Velez, N., &

- Garcia, M. (1990). Common and uncommon pathways to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d problem behavior. In L. Robins, & M. Rutter (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childhood to adulthoo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P., Cohen, J., Kasen, S., Velez, C. H., Hartmark, C., & Johnson, J. (1993). An epidemiological study of disorders in late adolescence: age- and gender-specific preval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 851-867.
- Cole, D. A., & Jordan, A. E. (1995). Competence and memory: integrating psychosocial and cognitive correlates of child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66, 459-473.
- Cole, D. A., & Turner, J. E. (1993). Models of cognitive mediation and moderation in chil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71-281.
- Cole, D. A., Ciesla, J. A., Dallaire, D. H., Jacquez, F. M., Pineda, A. Q., LaGrange, B., Truss, A. E., Folmer, A. S., Tilghman-Osborne, T., & Felton, J. W. (2008). Emergence of attributional style and its relation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1), 16-31.
- Garber, J. (2005). Depression and the Family. *Psychopathology and the Family*. In J. L. Hudson & R. M. Rapee (Eds.), *Psychopathology and the Family* (pp. 225-280). Elsevier Ltd.
- Gibb, B. E.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23-246.
- Goodyer, I. M., Germany, E., Gowrusankur, J., & Altham, P. (1991). Social influences on the course of anxious and depressive disorders in school-age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8, 676-684.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6), 773-796.
- Hollon, S. D., Muñoz, R. F., Barlow, D. H., Beardslee, W. R., Bell, C. C., Bernal, G., Clarke, G. N., Franciose, L. P., Kazdin, A. E., Kohn, L., Linehan, M. M., Markowitz, J. C., Mitlowitz, D. J., Persons, J. B., Niederehe, G., & Sommers, D. (2002). Psychosocial intervention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epression: promoting innovation and increasing access. *Biological Psychiatry*, 52, 610-630.
- Horowitz, J. L., & Garber, J. (2006).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401-415.
- Johnson, S. L., & McMurrich, S. (2006). Life events and juvenile bipolar disorder: conceptual issues and early finding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 1169-1179.
- Kendall, P. C. (2006).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3rd ed.). The Guilford Press.
- Kraai, V., Garnefski, N., de Wilde, E. J., Dijkstra, A., Gebhardt, W., Maes, S., & ter Doest, L. (2003). Negative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bonding and

- cognitive coping as vulnerability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3), 185-193.
- MacPhee, A. R., & Andrews, J. J. W. (2006). Risk Factors for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San Diego): an international quarterly devoted to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psychiatric, sociological, and educational aspects of the second decade of human life*, 41(163), 435.
- Pattison, C., & Lynd-Stevenson, R. M. (2001).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immediate and long-term outcomes of a school-based program. *Behavior Change*, 18, 92-102.
- Rudolph, K. D., Kurlakowsky, K. D., & Conley, C. S. (2001). Developmental and social - contextual origins of depressive control-related beliefs and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447-475.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091-1109.
- Sims, B. E., Nottelmann, E., Koretz, D., & Pearson, J. (2006). Preven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 99-103.
- Spence, S. H., & Reinecke, M. A. (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A. T. Beck, M. A. Reinecke, & D. A. Clark (Eds.), *Cognitive therapy across the lifespan: evidence and practice* (pp.358-3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rk, K. D., Schmidt, K. L., & Joiner, T. E. (1996). Cognitive triad: Relationship to depressive symptoms, parents' cognitive triad, and perceived parental messag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615-631.

원고접수일 : 2009. 7. 27.

게재결정일 : 2009. 8. 17.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Life Stress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life stress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It also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 with regard to the child's age and gender in order to clarify the mechanism of depression vulnerability. The participants were 345 male and femal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d more life stress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articula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d appearance-related stress.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more parental overprotection and mother's affection than did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that across the whole sample,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ere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life stress, and also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ther's rejection, mother's rejection, father's overprotection, and mother's overprotection. Results varied according to child's age and gender. In the cas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male middle school children, father's rejection was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other's rejection was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negative automatic though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ife stress, father's rejection and affec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significantly across the whole sampl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rejection and overprotection were also significant. There were age and gender differences here, too. In the case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interaction of life stress and father's affection was significant.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interaction of life stress and mother's affection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are more affected by the same gender parent's parenting style. This study's results may provide some important sugges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in depression by increasing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depression vulnerabilit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Key words : children's and adolescents' vulnerability to depression, life stress, parenting style, negative automatic thoughts, prevention